

나눔의 의미에 대한 고찰

2021. 8. 27
조남경(성공회대학교)

1

나눔을 정의하고픈..

무엇이, 어디까지가 나눔?

- 집계를 하려 해도, 비교를 하려 해도,
- 역사를 탐구하려 해도

2020년 나눔토대연구 '한국의 나눔, 정의와 변천' 중,
제2장 '나눔의 의미에 대한 고찰' 내용 중심

- 특히, 제1절 '나눔' 개념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2

목 차

나눔, 보편적 개념을 위해 (슬라이드 4 ~ 9)

나눔의 의미 고찰 (슬라이드 10 ~ 19)

- 왜 나누는가
- 누가 나누는가
- 무엇을 나누는가
- 어떻게 나누는가

종합: 나눔의 의미, 그 시작 (슬라이드 20 ~ 21)

3

나눔, 참 한국적인

상호부조 전통 빼? 그럼.. 너무 후진국 같잖아?

나누다, 나눠주다, 나눠 갖다 - 분할
나눠 쓰다 나눠 지다, 나눠 말다 - 함께
심지어 비물질적인 것들까지
→ 공유와 관계까지 확대하여

한국적으로 남으면 그 개념이 지속 가능할까?

4

나눔, 보편적 개념을 위해

나눔 대신 기부, charity, giving, 봉사, helping..?

- No.. 나눔 > ..
- 나눔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무엇!

그것은 필란트로피도 마찬가지 아닌가?

- 게다가 상호부조 전통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 그대로..
- 뭐가 다르고 왜 써야 하는지 / 상호부조는

5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시민자치활동', '다원주의'

-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변형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양한 가치의 지향 활동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가능
- 이러한 시민자치활동이 필란트로피
- 일종의 시민적 의무
- 시민계약론적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가장 꽃 피워
(국가에 대한 시각, 자유주의 전통의 강도 등의 차이)

6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시민자치활동’, ‘다원주의’

- 무언가(사회변화)를 목표하는 것이 중요
- 그 내용(‘무엇’ 혹은 ‘누구’)은 덜 중요
(가치의 다양성!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 따라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의 확장성
-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
- 엄격하게 따지면 19세기 이전 (종교적) 자선, 기부 등은 시민자치활동과 무관 (사회변화 목표가 없음)

7

나눔과 필란트로피

나눔으로 인간의 어떤 활동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인가

- 시공간을 넘어 모든 인간사회에서 발견되는 자발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타인(들)을 위해 주거나 돕거나 함께 하는 행위들
- 문화적 보편성으로서의 이타적 행동들
- 시민적 자치활동의 의미를 갖든 갖지 않든
- **pro-social behaviour**

8

나눔과 필란트로피

필란트로피는

- 기부, 자선 등을 포괄하며 많은 부분에서 겹치지만,
- 시민 자치활동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
- 개인이 가진 (도덕적) 견해를 표방하는 일
- 사회변화 목표 없는 이타적 행동에 판단 주저
(사랑의 온도계 온도보다는 시민사회 활동 정도가..)
(따라서 상호부조 활동은 필란트로피가 될 수 없어)
- 목표에 대한 가치판단 유보
- 자랑하고 칭송받을 행동 (전략적 필란트로피의 발전)

9

나눔 개념의 필요성 뚜렷하다면

나눔이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하는 행동?

10

왜 나누는가 - 공익을 위해

공익이란 무엇인가?

- 내가 아는 사람의 이익은 사회적 이익이 아닌가
-- 구성원의 이익은 더 활발한 사회참여로 이어져
- 사회적 이익은 개인적 이익으로 돌아와(순차적 호혜성)
- 사회 안에 완전히 낯선 사람은 없다 (티트머스)
- 기부는 아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이) 일어난다
-- 지인에 대한 부조만이 배제될 이유 없어
- 공익의 주관성: 사회적 목표가 강할수록
- 관계의 거리나 지향 가치로 공익 여부 가릴 수 없어
“자신을 넘어 타인이나 집단의 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도

11

왜 나누는가 - 공익을 위해

(공익을) 목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행위 목적을 뚜렷이 할수록 가치의 주관성 문제
→ 나눔에서는 타인이나 집단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다 정도 (우연히 그런 결과를 얻은 행위를 배제키 위해)
- 재난 상황에서 낮모르는 사람에게,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가족을 해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음식을 나누었다면? = 나눔
- 단순히 보복이 두려웠다면?

12

왜 나누는가 - 공익을 위해

왜 타인(들)의 복리를 신경쓰는가? (행위의 동기)

- 개인적 동기: 합리적 협력. 사회문제 해결, 평판, 세제혜택..
 -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 근대 시민의 사회적 책임감 ..
- 호혜적 동기: 조건부 협력. 중여-교환의 도덕, 기대와 의무
 - 상호의존과 협력이 생존의 전제조건, 재난상황에서 인간은 상호투쟁하지 않고 상호협력한다
- 이타적 동기: 본성적 협력. 공감, 무임승차자의 응징
 - 생각에 사회성이 내재화 (타인의 평가를 신경쓴다), 이익/보상과 무관하게 공동체, 평판, 규범을 신경쓴다

13

왜 나누는가

다양한 동기가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작용하여, 즉, “때론 공감의 마음이 앞서서, 때로는 호혜적 의무감에, 때로는 스스로도 알지 못할 같은 인간에 대한 의무감에, 때로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뻔히 예상됨에도 어찌할 수 없는 정의감에, 그리고 그 때도 다른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이유도 혼합되기도 하면서)”

자신을 넘어 타인이나 집단의 복리에 유무형의 보탬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탬이 되기 위해)

나.눈.다.

14

누가 나누는가 - 자발적 개인 혹은 단체가

자발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언제나 의무와 자발성이 혼합된 중여의 분위기” (모스)
- “필란트로피 정의시 자발성 너무 강조하면 안 돼, 모든 자선적, 자발적 행동에 의무 전혀 없는것 아냐” (페이턴)
- 기부하라는 주변의 암묵적 압력같은 예

→ 전적으로 강제된 것 아니라 스스로 ‘의도’가 있다면
= “타인의 복리에 보탬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로 충분

15

누가 나누는가 - 자발적 개인 혹은 단체가

자발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 직접적인 유형의 보상이라면 당연히 (그건 거래)
 - 무형의 보상이라면 (평판, 행복감, 긍정적 정체감..)
 - 시차를 둔 유형의 보상의 가능성이라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집단의 의사결정

16

누가 나누는가

개인 혹은 다양한 구성과 규모의 민주적 집단이

전적으로 무언가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거나,
전적으로 규범이나 전통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거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유형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 자발적으로

= 행위의 동기와 중첩, ‘타인(들)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의도를 가지는 순간에 이미 자발적

17

무엇을 나누는가 - 사회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

유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 (봉사, 시간나눔)

- 특히 무형의 자원 관련, 더욱 폭넓게 고민해갈 필요
 -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 일방향적 기부, 봉사 등은 협력과 이타행위의 일면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한 것만이 대상)
 - 공유, 공동노동, 공동돌봄, 마음나눔, 애드보커시.. (측정의 문제가 남지만)

(폭넓게 정의되는)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

18

어떻게 나누는가 - 분배(제공)하거나 공유

공유 - 이미 상호의존성에 의한 나눔을 포괄

- but, 나누어 갖고 쓰는 공유 넘어
나누어 짊어지는 협력과 연대로 확장될 필요

19

나눔의 의미

‘우리만의’ 개념 넘어
필란트로피, 기부, 봉사, 자선 등과는 다른
나눔의 보편성을 가진 개념으로 가져가려는 시도

“개인이나 집단이,
세 가지(이타적, 호혜적, 개인적) 주요 동기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공존·공생하는 타인과 집단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간과 노동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공유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협력·연대하는 행위”

20

지금까지는 주로
“기부, 자선, 봉사 + 알파 (상호부조)로서의 나눔”

시민사회 정향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부문에)
‘관 주도성’이 강하게 개입해 온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시민자치’와 무관한, 이타행위를 아우르는 나눔 개념 규정은 문제적으로 보일 수 있음

나눔의 개념으로 서지 못하면 계속 어정쩡할 것
정직하게 논쟁을 시작해야

감사합니다.

namk.jo@skhu.ac.kr

21